

Vol.85

InfoLink

The magazine
of ABB Korea

2016



Internet of Things, Services and People

ABB Column

4차 산업혁명을 위한
ABB의 비전 IoTSP

Collaboration

사물 인터넷,
또 하나의 가치혁신

Power and productivity
for a better world™



CONTENTS

2016
Vol. 85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InfoLink〉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으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03 CEO's Message

SPECIAL

- 04 Intro**
Internet of Things, Services and People
- 06 ABB Column**
4차 산업혁명을 위한 ABB의 비전 IoTSP
- 10 Finding ABB**
사물 인터넷 적용은 이미 시작되었다.
- 12 Collaboration**
사물 인터넷, 또 하나의 가치혁신

AROUND ABB

- 16 ABB People**
어쩌면 다른 우리, ABB라는 연결 고리를 갖다
- 20 ABB Family Day**
아빠와 자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 24 Integrity ABB**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Legislation'과 'Integrity'
- 26 Safety Guide**
함께하는 안전 ABB 만들기
- 28 At ABB**
그리드 자동화 교육현장
- 32 Photo Story**
ABB인의 특별한 기록

NEWSROOM

- 36 ABB Issue**
The future of ABB begins with you
- 38 ABB News**

InfoLink

ABB Korea Magazine | 2016 vol.85

발행인 최만규 | 편집인 김현주 | 발행일 2016년 06월 | 발행처 ABB 코리아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3(삼성동 157-33) | 전화 1588-9907 | 홈페이지 new.abb.com/kr

InfoLink팀 | 김현주 차장, 임현지 과장, 김승균 과장, 김성민 과장, 이창훈 과장, 이현희 과장, 장샛별 대리, 이예림 | 기획&디자인 하이미디어 P&I 02-795-3364



안녕하십니까,

1996년부터 시작된 ABB 코리아 사보가 어느덧 85번째 발간을 맞았습니다.

〈InfoLink〉는 ABB 전 세계 소식은 물론 최신기술, 기업문화, ABB 직원들의 모습에 대한 다양한 기사를 담아내며, 대내외적으로 ABB를 알리고 유용한 정보를 전하는 충실한 메신저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금번 발행호는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물 인터넷과 관련한 ABB 기술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물, 서비스, 사람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기술을 뜻하는 'IoTSP'는 사물 인터넷 기반의 통합산업에 대한 ABB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은 사회와 산업 전체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앞으로 우리 생활은 물론, 산업계에서 큰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기업이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여 어떻게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제조업뿐만 아니라 발전·송배전에서도 사물 인터넷이 접목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ABB는 전력 및 자동화 기술 선도기업으로서 오래 전부터 디지털화를 주도해왔습니다. 제품 절반 이상이 소프트웨어에 기반하고 있으며, IoTSP의 중요한 파트인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도 수년전부터 중점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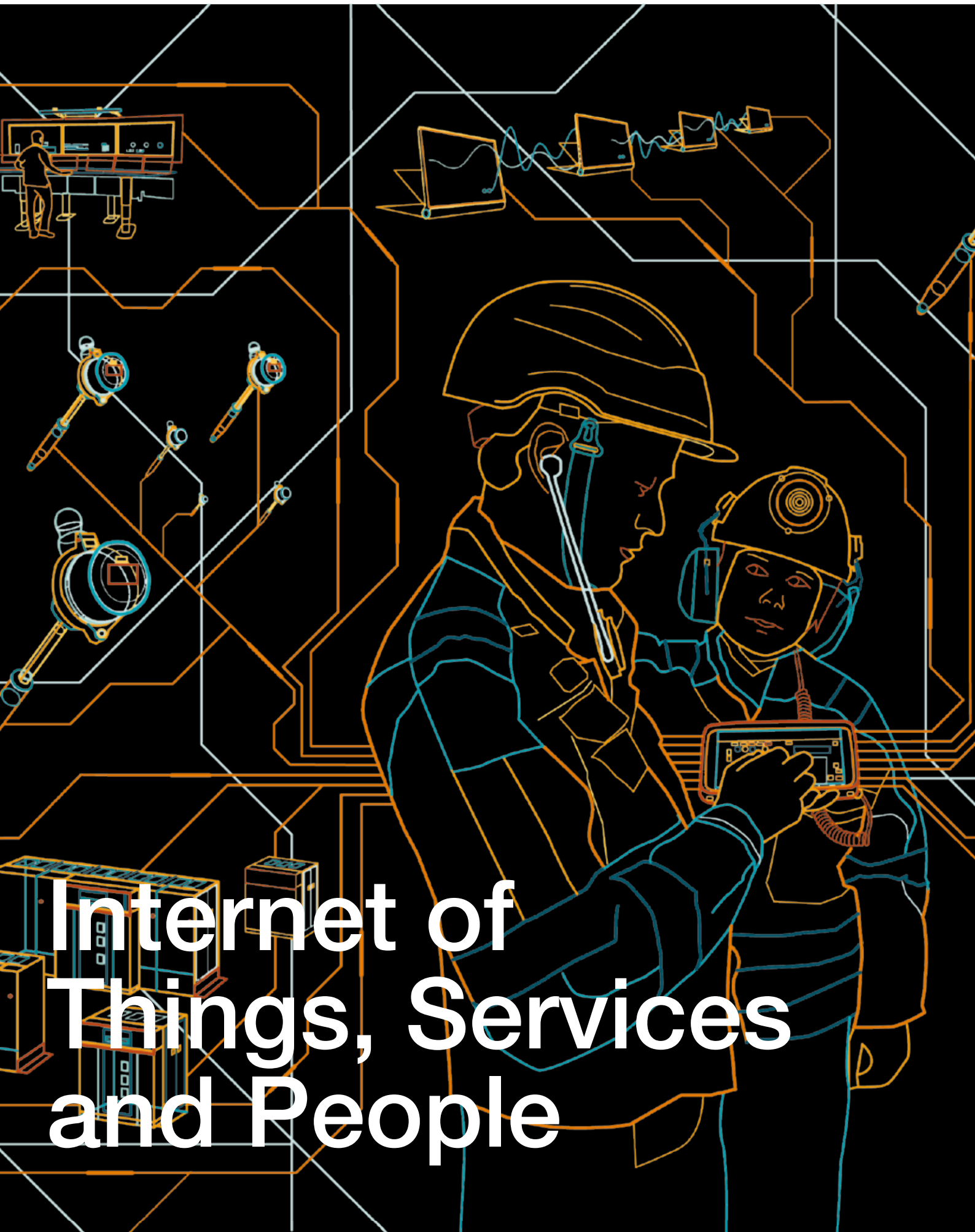
ABB의 IoTSP의 사례는 다양합니다. 원거리에 있는 해양설비 및 선박에 ABB제품의 원격진단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2006년부터 인도의 ABB 서비스센터에서는 전 세계에 설치된 5,000대 산업용 로봇을 모니터링 및 관리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2016년에는 파격적인 저압모터용 스마트 센서 출시 및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의 전력 및 에너지를 감시/제어/최적화 할 수 있는 Skip SmartVision을 선보였습니다. 이미 업계에 다양한 분야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IoTSP는 앞으로 더욱 발전을 거듭할 것입니다.

올해는 ABB의 전신인 스위스 Brown, Boveri & Cie의 창립 1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ABB는 전력 및 자동화 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ABB의 노력은 전 세계의 전력산업에서 기술적, 지리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꾸준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ABB는 고객에게 생산성과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이뤄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여러분이 ABB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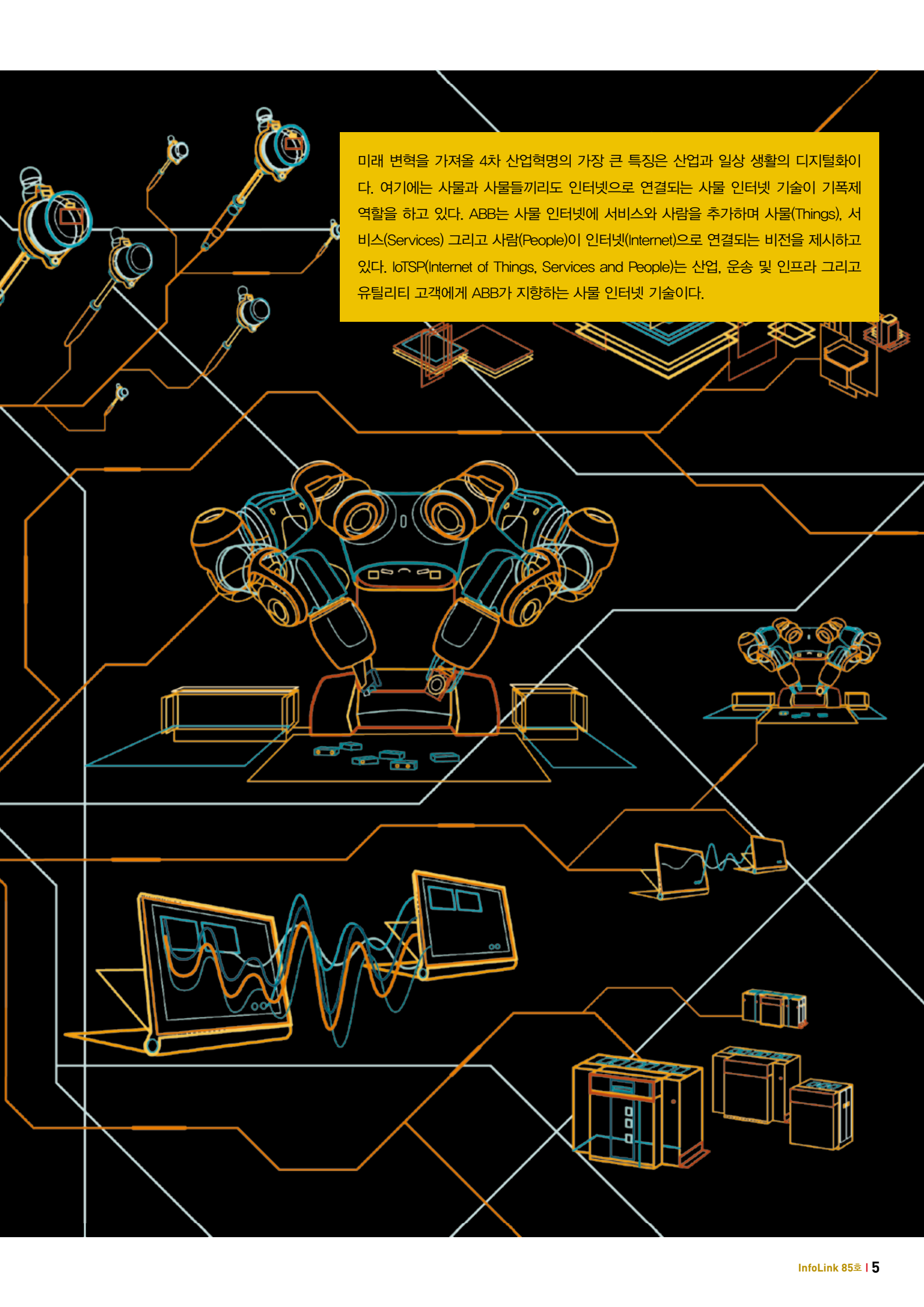
IoT 시대를 준비하는

ABB

2016년 6월
대표이사 사장 **최 민 규**



Internet of Things, Services and People



미래 변혁을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과 일상 생활의 디지털화이다. 여기에는 사물과 사물들끼리도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ABB는 사물 인터넷에 서비스와 사람을 추가하며 사물(Things), 서비스(Services) 그리고 사람(People)이 인터넷(Internet)으로 연결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IoTSP(Internet of Things, Services and People)는 산업, 운송 및 인프라 그리고 유틸리티 고객에게 ABB가 지향하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ABB의 비전 IoTSP

글 InfoLink team 김성민 과장

여러 미디어를 통해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라는 단어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인간의 개입 없이도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이 연결되어,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인 IoT는 가정은 물론 산업계에도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ABB 역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산업분야와 IoT 기술을 접목시키기 시작했다. 'IoTSP(Internet of Things, Services and People)'를 접목한 기술에 대해 알아보자.



IoT의 정의 및 도래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 인간의 개입 없이도 상호 협력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사물이란 가전제품, 차량, 각종 전기장비, 웨어러블 컴퓨터 등 다양한 임베디드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인터넷 및 통신의 발달로 M2M(Man to Man)으로 주로 이용되었던 기술이 이제는 사물과 사물,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간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IoT란 용어는 1999년 MIT 오토 아이디어 센터 소장이었던 케빈 애쉬턴이 처음 사용하였다. 이보다 더욱 확장된 의미인 만물 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IE)은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사물뿐 아니라 사람, 데이터 프로세스까지 연결하여 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최근 특정 통신사의 TV 광고에서 주택 보안이나, 집안 가전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조절하는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여기에 'IoT'라는 로고가 새겨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첨단 기술의 응용에 강한 한국이 그동안 인터넷, 무선 통신, 스마트폰 등의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였던 과거를 비추어 볼 때, IoT의 대중화는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적용되는 IoT 기술의 예는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고속도로를 지날 때 자동으로 결제되는 하이패스, 차 근처에 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스마트 키, 자동으로 충전기를 찾아가는 로봇 청소기 등 주변의 IoT를 이용한 기기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 기업에서는 IoT 기술을 여러 응용분야에 이용하고 있는데, 일례로 Google에서는 2010년 무인차 개발에 성공 후, 자동 운전 기능인 Google chauffeur가 무인으로 운전해 준다.

**IoT라는 용어가
대중화되기 전부터
ABB는 산업계의
생산라인 및 전력망과의
효율적인 통신을
적용하기 위해 다각도로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다.**



2016 하노버 산업 박람회에서 선보인 ABB IoTSP 기술

IoT 기술 구현을 위한 기술 요소

IoT 기술 구현을 위한 기술 요소는 기본적으로 센서(Sensing)와 네트워크(Network)다. 흔히 Sensing이라고 하는 사항은 보편화된 웨어러블 디바이스(Smart watch, google glass 등)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통신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운송이나 탑승에 적용한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무인 자동차와 요즘 많이 언급되는 무인 드론 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산업화에서는 로봇을 이용한 logistic에 응용되는 경우가 있다. Google과 Amazon에서는 물류로봇 Kiva를 이용하여 서적의 상하역 및 운송에 적용하여 현재 운영 중이다.

이에 다른 중요한 기술 요소는 이러한 센서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상호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엄청난 양의 정보를 인식 및 행동에 옮기기 위하여 데이터를 저장/분석/처리를 해야 하며, 현대화에 맞추어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하여 클라우드로 가는 추세이다.

산업화 선두 주자, ABB IoTSP

IoT의 기술 발달은 산업계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ABB 또한

산업분야와 IoT 기술을 접목시키기 시작했다. IoTSP(Internet of Things, Services and People)로 정의하며 이를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ABB는 십수 년 동안 공정 제어 시스템, 통신 솔루션, 센서와 소프트웨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IoT라는 용어가 대중화되기 전부터 ABB는 산업계의 생산라인 및 전력망과의 효율적인 통신을 적용하기 위해 다각도로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기술은 보다 지능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운영을 최적화하며 생산성 및 유연성을 강화하여 산업, 유틸리티 및 인프라에 ABB의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일례로 센서 부분은 ABB의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고 네트워크는 각 나라 기반의 통신 회사를 이용하며, 클라우드 기술은 Ericsson의 클라우드 시스템과 ABB의 DCIM(Data



Center Infrastructure Management) 플랫폼인 Decathlon 솔루션을 활용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전략적 동맹을 맺었다.

ABB의 IoTSP 예

저압모터 정지시간을 70%까지 낮추고, 모터 수명을 30% 연장하는 ABB 스마트 센서 솔루션 저압모터의 운전 시 모니터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높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ABB 신규기술을 통한다면 일반 모터의 서비스 시기를 자동으로 알 수 있다. 모터에 장착된 스마트 센서는 무선으로 모터의 동작 상태와 컨디션 파라미터를 전송한다. 이러한 센서 기술을 통해 플랜트 운영 기업은 유지보수 측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 기술로 전세계에 설치된 수억 개의 모터에 IoTSP 구현을 가능하게 만든다. 지난 4월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회에서 ABB가 선보인 스마트 센서는 진동, 온도, 오버로드와 같은 동작 상태 파라미터 정보를 제공하며, 전력 소비량을 측정한다. 이렇게 취합된 데이터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석되어, 유지

보수 계획을 위한 그래프 형식으로 플랜트 작업자에게 전달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정지 시간이 70%까지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와 더불어 모터 수명은 30% 증가하고, 에너지 소비를 10% 가량 절약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1년 이내에 투자비용이 회수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ABB 산업자동화 사업본부 대표는 “이 혁신적인 솔루션은 저압 모터의 모니터링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고 전하며, “최적화된 유지보수 스케줄로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여 예상치 못한 시점에 모터가 정지되는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거나, 이런 횃수를 크게 줄인다. 즉 유용성이 증가하여 고객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라고 설명한다. 혁신적인 솔루션은 ABB 신규 모터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모터 센서는 공장의 다른 기기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미 사용중인 저압 모터에도 신속한 장착이 가능하다. ABB는 신규 센서 기술에 대해 완벽한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고 있다. 센서와 모터는 전기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승인되지 않은 외부인은 해당 라우터를 통해 모터로 접근이 불가능하다. 스마트 센서는 암호화된 프로토콜을 통해 데이터를 보안 서버로 무선 전송하고, 보안 서버에서는 특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이를 분석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서버 구현은 ABB의 엄격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조건을 충족한다. 데이터는 클라우드에서 암호화된 형식으로 저장된다. 인터넷 기반의 고객 포털 역시 데이터에 안전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역할 기반 접근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그리고 미래에 수익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IoTSP를 기반으로 한 Next Level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산업 자동화 및
Power component(Things)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진보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사용하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고객이 경쟁우위를 점유하도록 만듭니다.”

– Ulrich Spiesshofer(ABB CEO) –

이 외에 IoTSP를 이용한 ABB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 2006년부터 인도 방갈로에서 전세계 5,000대 이상의 로봇을 모니터링
- 2011년부터 유럽에서 Gearless Mill Drive 모니터링
- Maersk 140척 선박에 대한 선로 최적화(Route-optimization) 소프트웨어
- Integrated Marine 동작 센터를 통한 선박 500척 모니터링
-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각 유틸리티의 모니터링
-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AEP) 소유 전력망에 20,000개 변전소의 변압기, 차단기 모니터링

Hannover Messe 2016에서 ABB

ABB는 4월 25일에서 29일까지 진행된 2016년 하노버 산업 박람회에서 ‘통합 산업 솔루션’의 주제에 맞게 IoTSP에 대한 갖가지 솔루션을 선보였다.

ABB의 IoTSP 개념은 모든 고객 세그먼트에 핵심 요소인 개척해 나가는 서비스와 솔루션을 포함한다. 유틸리티, 산업, 교통 및 인프라 부문에 관계없이, ABB는 고객 각자에 대한 사용자 정의 및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IoTSP 솔루션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문을 열 수 있도록 설계된다.

ABB의 IoTSP 솔루션으로 성공적인 자원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다.

1차 증기기관의 발명, 2차 산업혁명(대량생산, 자동화), IT가 산업에 접목된 3차 산업혁명에 이어, 사이버물리시스템(CPS)으로 엄청난 미래 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은 국가별로 인더스트리 4.0, 산업 인터넷, 제조 혁신 3.0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궁극적으로 완전한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생산 과정의 최적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산업계 측면에서 스마트 공장으로 진화를 앞두고 있다.

130년간 기술혁신을 이어온 ABB는 이미 스마트 공장을 위한 기술과 솔루션을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하며 기술 개척자로서 리더십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ABB의 IoTSP는 제조는 물론 발전, 송배전 분야까지 포함하며 보다 폭넓게 제4차 산업혁명을 실행 중이다.

참고문헌

정보통신산업진흥청 (Nipa) – 해외 ICT R&D 정책동향(2013년 06호), ABB 보도자료

ABB 스마트 센서가 장착된 저압 모터



디지털화에 대한 ABB 비전 IoTSP(Internet of Things, Services and People) 기술은 우리 주변 곳곳에 적용되고 있다. 우리의 삶을 빠르게 바꿔나가고 있는 사물 인터넷 기술. ABB는 IoTSP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척하고 개발해오면서 Next Level로 도약 중이다. 스마트 공장, 디지털 변전소, 빌딩자동화, 데이터 센터 등 이미 사물 인터넷 컨셉이 도입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사물 인터넷 적용은 이미 시작되었다

글 InfoLink team 이창훈 과장

YuMi

산업용 최초 협업용 양팔로봇 YuMi는 2015년 첫 구매가 진행된 이후 다양한 제조공정에서 로봇과 사람의 공동 협업이 가능해 여러 국가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높은 정밀성과 더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YuMi는 사물 인터넷에서 더 나아가 ABB가 지향하는 기계와 인간의 협력을 높이는 진일보한 서비스를 실현한다.

IoTSP



ABB 전기급속충전 시스템

벨기에, 룩셈부르크 지역에서 운행 예정인 볼보 공공 전기버스는 ABB 전기 급속 충전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일반적인 전기 급속 충전 시스템은 30분 이내로 충전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적용된 ABB 급속 충전 시스템은 버스의 경유지마다 설치되어 4~6분간 충전을 통해 버스의 24시간 운행이 가능하다. 원격 진단 및 관리가 가능해 문제 발생 시 최초에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고, 평균 수리 시간을 짧게 만든다.



ABB 스마트빌딩 시스템

암스테르담 지고 돔(Ziggo Dome)에는 ABB KNX 스마트빌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건물의 내외부 조명을 비롯한 터치스크린, 화재알림, 도어시스템 등은 ABB KNX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가 가능하고, 건물 입구에서부터 복도, 무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명은 버튼의 싱글터치로 손쉽게 제어 가능하다.



DCIM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리(DCIM) 데카트론 (Decathlon)은 수년째 전 세계 DCS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ABB의 경험과 기술 노하우가 고스란히 녹아든 솔루션이다.



로봇 원격 서비스

ABB는 벨기에 포장전문 기업의 산업용 로봇에 대한 원격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원격 서비스의 장점은 로봇이 계속 모니터링 되어 예기치 못한 고장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크레인 원격운영 시스템

항만 물류기업 DP월드가 운영하는 제벨 알리항 제4터미널은 ABB 원격 솔루션이 장착된 크레인이 운영된다. 터미널 운영·시간 효율을 높이고, 보안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사물 인터넷, 또 하나의 가치혁신

글 김수진 사진 이맹호

산업자동화 사업본부,
로봇 사업부 & 드라이브 및 제어 사업부



지난 30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룬 인터넷을 우리의 삶에서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시야를 넓힌 것은 물론 세상의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돼 산업 기술진일보에 한 획을 그었다. 제4차 산업 혁명이라 불리는 '인더스트리 4.0' 시대를 맞아 제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이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ABB 역시 'IoTSP'를 비전으로 내걸고, 기존 사업 분야와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드라이브 및 제어 사업부와 로봇 사업부를 만나 사물 인터넷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사업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 <InfoLink> 인터뷰 지면 덕분에 성사된 것 같네요. 우선 여기 모인 여섯 분 모두 본인 소개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조신현 이사 : 드라이브 및 제어 사업부에서 영업, 마케팅 부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약 60여 명의 직원들이 함께 하고 있지요.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 팀으로 나뉜 영업팀들과의 회의에 하루가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흘러갑니다.

지영호 과장 : 조선 분야 세일즈를 맡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울산 사무소로 발령을 받아 경상남도 지역 신규 시장 개척을 하고 있고요. 마린 & 항만 쪽에는 다양한 드라이브가 들어가는데, 오늘 인터뷰 주제인 IoTSP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용환 과장 : 드라이브 사업부에서 저압 & 고압 드라이브에 대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관리도 하고 있어요.

장길돈 이사 : 로봇사업부의 전체적인 비즈니스를 영업 총괄하고 있는 장길돈 이사라고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주로 산업용 로봇을 핸들링하고 있는데 자동차 시장은 물론이고 전자(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식음료, 약품, 화학 분야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K-뷰티 열풍 때문에 약품보다는 화장품과 관련한 비즈니스가 활발하지요.

김대연 과장 : 로봇사업부에서 전자 쪽을 담당하고, 아울러 글로벌 삼성 그룹의 Key Account Manager를 맡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삼성과 관련한 로봇 비즈니스 보고 덕분에 하루를 정신없이 지내고 있지요.

이상호 차장 : 로봇사업부에서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CPG(Consumer Packaged Goods) 즉, 소비재 관련 로봇 자동화, 물류 자동화 등을 포함하고 있지요. 제품별 담당자들과 모여 고객 정보를 공유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부를 이 자리에 모신 것은 ABB 내 핫 토픽으로 떠오른 IoTSP(Internet of Things, Services and People)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뉴스나 매체를 통해 자주 언급되고 있는 IoT란 대체 무엇일까요?

장길돈 이사 : 미디어를 통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IoT 즉, 사물 인터넷이라는 단어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는 시선이 있어요. 산업



드라이브 및 제어 사업부 최용환 과장, 조신현 이사, 지영호 과장

분야에서는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이라는 용어로 많이 지칭되고 있습니다. 1, 2, 3차 산업혁명을 지나 4차 산업혁명이 산업 전반에 걸쳐 이뤄지면서 제조업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요.

조신현 이사 : 2006년도에 ABB에서 'Industrial IT'라는 슬로건을 내건 적이 있었어요. 지나고보니 Industrial IT가 IoTSP와 일맥상통하더군요. 산업계에서 본격적으로 IoT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서비스나 다양한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 ABB내 모든 사업부가 각기 다른 콘셉트 제품을 진행 중이지만, 두 사업부가 가장 밀접하다고 여겨집니다. 실제 협업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신현 이사 : 지난 5월부터 로봇사업부의 이상호 차장과 팀을 구성해서 식음료 및 약품 시장을 공략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팀을 구성한 적은 처음이에요. 그동안은 자동차, 철강 등 중공업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앞으로는 일반 산업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차장 : 현재는 정보 공유를 비롯해 엔드 유저 공략 등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ABB에서 로봇을 비롯해 드라이브 등 다양한 제품군이 있다는 것을 인지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ABB는 그동안 제어시스템, 통신 솔루션, 센서, 소프트웨어가 병립 및 호환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해왔습니다. 출발점에 서 있는 저희가 앞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부서별로 사물 인터넷과 관련한 기술이 얼마만큼 적용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영호 과장 :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 10여 년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드라이브 모니터링 제품'입니다. 원거리에 위치한 인버터 즉, 드라이브에 대해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데이터 수집을 통해 원격 모니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특히 바다 위를 항해하는 선박이나 해외 플랜트의 경우,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지요.

최용환 과장 : 드라이브 유지 보수쪽에서는 쿨링팬 이슈도 큼니다. 교체 주기를 디스플레이로 알려주고 필요에 의해 상위 시스템으로 정보를 주는 식으로 말이죠. 또 드라이브 베이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인버터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글로벌 업체들이 내놓고 있는 IoT 서비스는 거의 90% 이상은 원격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급할때 엔지니어가 현장에 나갈 필요없이 급한 것들은 바로 인터넷상이나 웹상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김대연 과장 : ABB는 2006년부터 로봇 원격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IoT 개념이 정립되기 전부터 이미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되고 있었지요. ABB가 전 세계에 공급한 산업용 로봇이 약 30만대 정도인데, 이 중 원격 서비스를 받는 로봇은 5000대 가량입니다. 보급률은 저조한 편이지만 앞으로 그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길돈 이사 : 로봇의 진화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산업용 로봇 또한 많은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지요. 기존에는 장소와 안전문제 등의 이유로 사람과 산업용

로봇의 협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ABB가 출시한 양팔 로봇 YuMi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선 제품입니다. 인더스트리 4.0과 맞물려 YuMi에 대한 높은 관심 이면에는 You and Me(너와 나)에서 기인된 이름처럼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oT, 스마트 팩토리과 관련해 각자가 체감하는 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신현 이사 : 대기업들 중에 보안 문제를 이유로 원격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어요. 원격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에 연결되는 순간 보안 위협에 시달린다는 거지요. 혹은 자체 원격 서비스를 구축한 다음 그것에 맞는 솔루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소기업의 경우는 원격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장길돈 이사 : 문화적인 문제도 걸림돌이에요. 우리나라는 'AS는 무료'라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로봇쪽의 예방 보전 프로그램에 관해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사실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거든요.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 알려지면서 고객들, 엔드유저들의 자동화에 대한 선호, 의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스마트 팩토리, IoTSP는 어떤 형태가 될까요?

조신현 이사 : 거의 무인화에 가까운 형태가 되겠지요. 사람이 없더라도 유기적으로 서로 공존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에 가깝지 않을까요? 과거처럼 획일화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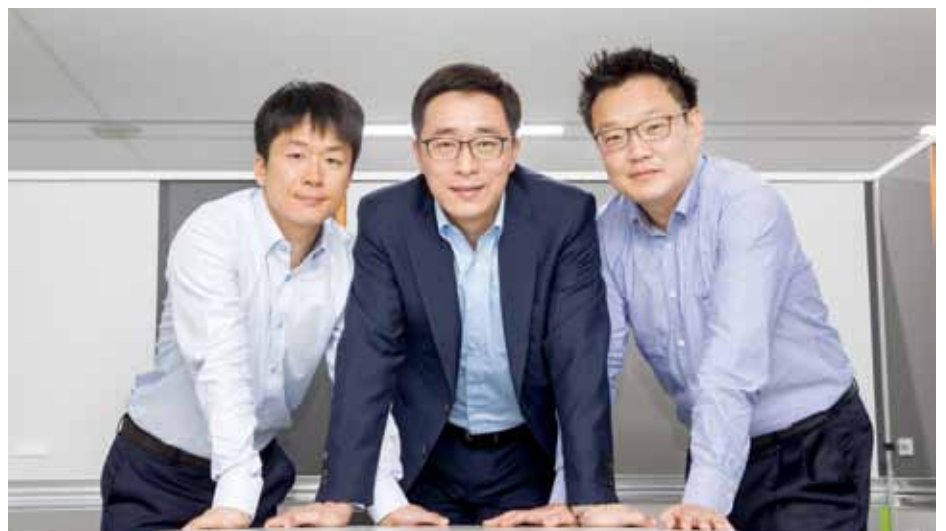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스마트 팩토리고 IoTSP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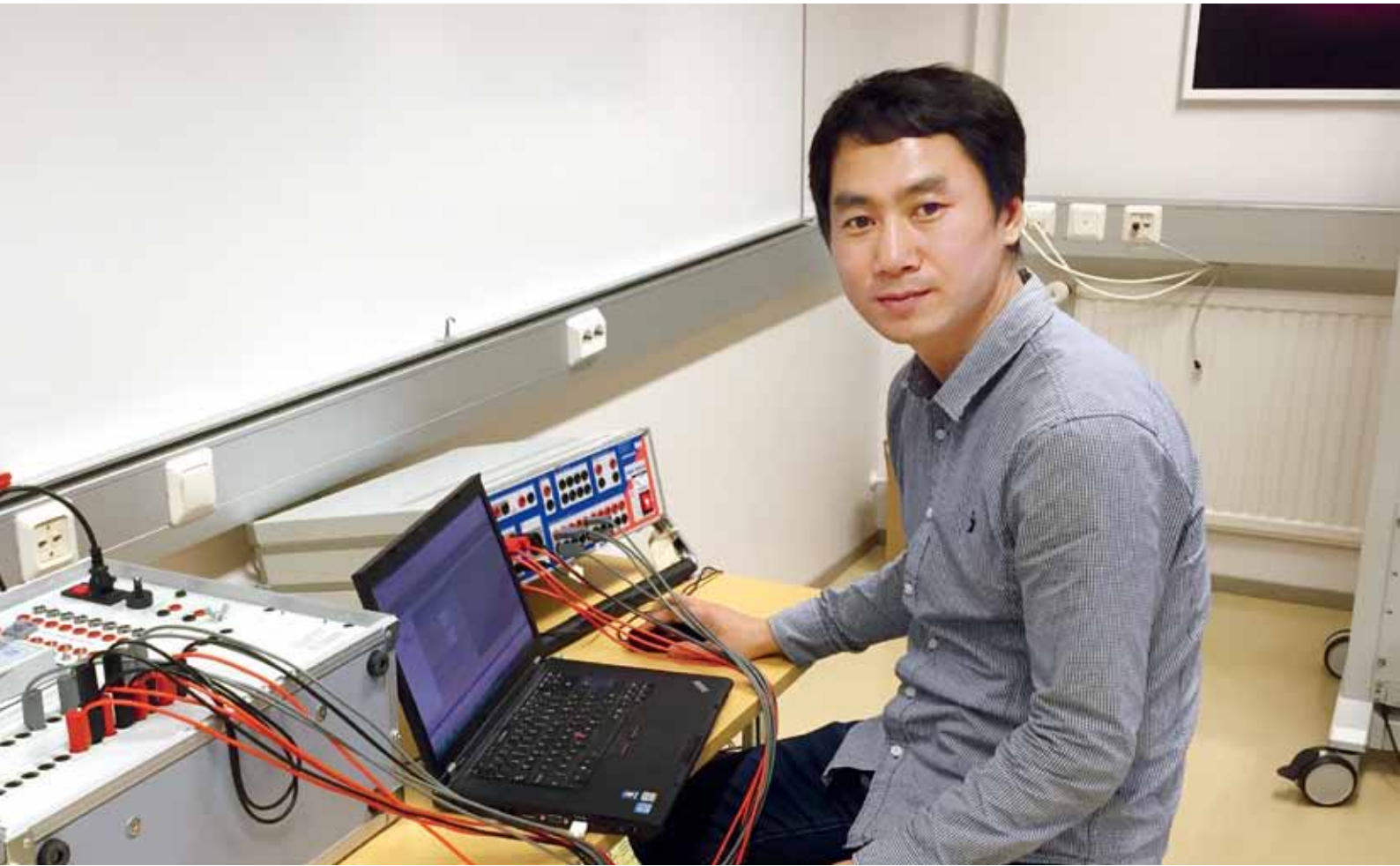
이상호 차장 : 2020년에는 로봇 소비량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전제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easy to use.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실제로 그런 로봇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YuMi가 그렇고, 곧 출시될 '곰텍(Gomtec)'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저렴한 가격이었지요. 이 두 가지 조건만 맞는다면 로봇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기업들은 앞다퉈 어디다 적용할지를 고민하겠죠.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부터 로봇에 투자한 것은 바로 이 시기를 준비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지영호 과장 : IoT를 통해 얻은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인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미 많은 세계적 기업이 인더스트리 4.0에 맞춰 서비스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ABB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ABB가 지금까지 선두업체로서 역할을 해왔듯이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솔루션 서포트의 역할을 함으로써 IoT 분야에서도 선도해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봇 사업부 김대연 과장, 장길돈 이사, 이상호 차장



ABB는 제어시스템, 통신 솔루션, 센서, 소프트웨어가 병립 및 호환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해왔습니다.



글 InfoLink team 김승균 과장

어쩌면 다른 우리, ABB라는 연결 고리를 갖다



ABB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인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 사람과 외국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 비록 다른 나라
문화권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ABB라는 가치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ABB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진 두 명의 직원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Q 안녕하세요? 오늘은 ABB에서 해외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경일 과장 안녕하세요. 고압 배전반 사업부에서 보호계전기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일 과장입니다. 2006년도에 입사해 금년 8월이면 어느새 만 10년째 근무를 하게 되네요. 입사 후 서울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를 해왔고, 부산 터보차저 사무실에서 2년 정도 파견근무를 했었습니다. 현재 핀란드 바사(Vaasa)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2010년 결혼해 올해 5살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알레인 쉐페르 차장 제 이름은 알레인 쉐페르(Alain Schaefer)이고 스위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따라 여러 나라에서 살았기에 5개 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첫 학교는 프랑스어 계열이었고, 20대에는 브라질에서 4년여 간 석사로 전기공학을 전공했으며, 스위스로 돌아와 9년째 ABB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ABB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과장 스위스에서 오셨군요. 스위스는 참 멋진 자연 경관을 가진 나라로 유명합니다. 스위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레인 쉐페르 차장 스위스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초콜릿, 시계, 그리고 유제품이 유명한 곳으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처음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Landsgemeinde)'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란츠게마인데는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서 모든 주민이 광장에 모여 주요 사안에 대해 직접 결정하는 주민총회입니다. 매년 네 번에 걸쳐 중요 법안 등이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통과됩니다.





이러한 직접 민주정치는 이제 스위스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핀란드는 어떤 나라인가요?

김경일 과장 핀란드에 대하여 소개를 드리면 일단 한국에서는 자일리톨 껌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노키아 등 IT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날씨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으로 유명하고, 여름에는 해가 지지 않는 백야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핀란드 북쪽에 위치한 '로바니에미(Rovaniemi)'라는 지역은 산타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유명합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이 산타클로스 마을을 보기 위해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Q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알레인 쉘페르 차장 현재 전력제품 영업부의 그리드 자동화 마켓 매니저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역할은 한국 EPC사와 전 세계 ABB의 공장을 영업력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스위스 바덴(Baden)에 위치한 송배전 사업부의 지역 세일즈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 받았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케이팝과 삼성의 모국으로 알려진 한국은 이미 스위스에서 지낼 때부터 친숙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김경일 과장 핀란드 바사에 오게 된 계기는 핀란드 ABB에서는 전 세계 보호계전기팀과의 꾸준한 교류와, 팀장님과 팀 동료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 근무지는 고압배전반 사업부의 보호계전기 공장이며, 솔루션 부서에 소속되어 보호계전기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마케팅 매니저로서 업무를 담당하며 보호계전기와 관련된 전 세계 고객사에 제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품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ABB 보호계전기팀 및 고객사에 신기술 및 제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한국에서 생활한다면 음식 이야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알레인 씨, 어떤 한국 음식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알레인 쉘페르 차장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바로 김치찌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점심이든 저녁이든 꼭 찾아먹습니다. 이제 여름이라 물냉면과 콩국수를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신이 납니다. 또 해산물을 좋아하는데 한국에서는 신선하고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특히 산낙지를 먹어본 기억이 참 새로웠습니다. 꼭 다음 번에는 세발낙지를 통으로 먹어 보고 싶군요.

김경일 과장 핀란드에서 있는 저로서는 정말 부러운 소리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일주일에 김치찌개를 한번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핀란드에 있으니 한국 음식이라면 전부 다 그럼네요. 들어가면 먹고 싶은 음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알레인 쉘페르 차장 어떤 음식이 제일 그리운가요?

김경일 과장 김치찌개, 삼겹살, 회, 짜장면 다 먹고 싶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이 가장 좋습니다. 산낙지는 한국 사람들도 먹기 힘든 음식인데 알레인씨 정말 대단하네요. 혹시 한국의 직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스위스 음식이 있나요?

알레인 쉘페르 차장 스위스의 유명한 음식으로는 대부분 따뜻한 치즈에 찍어 먹는 풍두나 샴은 감자와 피클 위에 녹인 치즈를 얹어 먹는 라클렛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제 추천은 게슈넬첼테스(Geschnetzeltes)입니다. 자른 송아지 고기에 부드럽고 맛있는 크림소스를 얹어 감자요리와 함께 곁들여 먹는 음식으로 지난번 스위스를 방문한 한국 고객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Q 혼자 타국에서 지내면 외롭기도 할 텐데요, 퇴근 후나 주말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알레인 쉘페르 차장 주말이 되면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서울을 즐깁니다. 특히 남산 공원이나 한강 공원에 가서 조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한국은 아름다운 산이 많아 등산 및 하이킹을 즐겨합니다. 서울은 운동하기에 좋은 장소가 참



회식 등 사석에서 팀원들을 만났을 때 처음 느꼈던 딱딱한 모습 대신 친근하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회식 문화를 통해 팀원들과 소통하며 친하게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Q 그렇다면 스위스나 핀란드 사람들과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Tip이 있을까요?

알레인 쉘페르 차장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약속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위스에서는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깔끔하게 정리 정돈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서류나 메일을 주고받을 때 정확하게 의견을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위스는 낮은 직급 혹은 나이가 어린 직원이라도 그 분야의 책임자라면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 등의 아주 중요한 결정도 부서장이 아닌 책임자가 내립니다.

김경일 과장 핀란드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쉽게 돌아가기 보다는 관련된 문제에 끝까지 책임지고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다보니 때론 일을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함께 일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빠르게 진행하는 한국인으로서 인내심을 필요로 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판문점을 방문하였는데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김경일 과장 업무를 마친 뒤에는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현재 제가 있는 바사는 핀란드 서해안에 위치한 도시로 바닷가와 숲 속 산책로가 정말 아름답게 도시를 감싸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는 그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 경치를 감상합니다. 또한 회사 동료로부터 테니스를 배우며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Q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화적 차이로는 어떤 점이 있나요?

김경일 과장 사내 및 팀원들과 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끔 저녁에 팀원들과 회식도 하면서 팀워크를 이뤄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일반적으로 업무 외적인 시간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거나 가족과 함께 보냅니다. 근무 시작 후 일주일 만에 팀장님으로부터 퇴근 후 운동을 하러 가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친해지기 위해 “술 한 잔 하러 갑시다.”가 일반적인데 이곳은 “운동하러 갑시다.”라고 하는 게 조금 신기했습니다. 덕분에 요즘은 운동에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알레인 쉘페르 차장 저는 정반대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겸손함과 예의를 중시하는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유럽과는 차이가 있어서 처음에는 약간 딱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업무에서는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하되,

Q 해외에서 시차를 맞추기 힘들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경일 과장 핀란드에서 근무한 지 벌써 4개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근무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과 소중한 인연을 통해 많은 배움을 얻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는 핀란드와 한국을 연결하는 소통의 채널로 역할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은 기회를 통해 많은 ABB 코리아 직원들이 Global ABB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알레인 쉘페르 차장 해외파견을 통해서 서로 다른 문화권을 체험하며 정말 뜻 깊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근무라는 새로운 도전은 글로벌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계속적인 도전 의지와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ABB 글로벌 모빌리티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BB is everywhere!



아빠와 자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본 촬영은 안전여부 확인 후에 진행되었습니다.

글 김지혜 사진 이용관

2016년 <InfoLink>에서는 회사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원들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자긍심과 애사심을 고취시키고자 사우 가족들을 그들의 일터로 초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배전반 솔루션 부서인 김영민 대리의 가족이 그 첫 번째 주인공.
5월의 어느 날, 김영민 대리와의 세 아이들은 복잡한 공장 속 체계적인 생산 라인을 살펴보는 물론
가족끼리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일상생활에서 산업 공장에 이르기까지

“아빠가 이걸 다 만드는 거야?”

평소 아빠의 출퇴근 모습만을 보아오던 첫째 아들 예준, 둘째 딸 예서, 막둥이 아들 예현 삼남매. 이날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위해 충남 천안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공업단지에 위치한 ABB 코리아 공장에 방문했다. 밝게 불이 켜진 공장 안에 들어서자 실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와 경적 소리를 내며 바빠 움직이는 운반차량에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제1공장에서는 배전반과 인버터가 생산되며 이외에도 산업용

로봇, 제어시스템 등에 대한 엔지니어링이 이뤄지며, 제2공장에서는 변압기가 제조된다. ABB 제품은 우리 일상 생활에 적용되어 있다. 스키장 리프트에 설치된 인버터, 고층 건물에서 사용하는 변압기, 테마파크와 백화점의 전력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공급하는 장치에 ABB 코리아의 기술이 녹아들어 있다. 뿐만 아니라 수년 전부터 국내에서도 호텔이나 가정집에서 쓰이는 전등 스위치, 일조량에 따라 내부 조명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지능형 시스템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생산하고 있으니 ABB 코리아는 우리 일상과 가까운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기에 김영민 사우 역시 기계와 제품을 소개하는 데 집에 있는 친숙한 물건들을 예로 들며 눈높이를 맞춘다.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들을 보니 아빠의 설명이 안성맞춤인 모양새다.

“집에서 TV를 켜고 컴퓨터를 사용할 때 코드를 콘센트에 연결해야 하지?”

이곳처럼 넓은 공장에서 전등을 켜고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집보다 더 큰 콘센트가 필요해. 전기 공급을 위해 연결된 전선이 한데 모이도록 하는 제품을 배전반이라고 하는 거야.” 공장 바닥에는 작업차량이 움직이는 초록색 라인과 공간과 직원이 지나다니는 하늘색 라인으로 나뉘어져 있다. 김영민 사우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안전 수칙을 거듭 강조하며 하늘색 공간 안으로 안내한다. “공장 안에서는 하늘색 세이프존 안에서만 다녀야 해. 이곳은 안전한 곳이거든.” 아빠의 말에 아이들과 아내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붙잡은 손에 더욱 힘을 준다. 아빠의 안내에 따라 걷다보니 어느 새 걸음을 멈춘 곳은 커다란 기계 앞이다. “우와~ 엄청 크다! 로봇이 만들어질 것만 같아.”

“이 기계는 종이접기 하는 것처럼 철판을 접을 수 있어. 힘이 엄청 강한 기계라 작업할 때 조심해야 돼.” 금방 본 판판한 철판이 포밍 머신(Forming Machine) 속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자 거짓말처럼 한쪽이 접혀 나왔다.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와!’ 감탄사를 연발했다.

“아빠, 저거는 뭐야? 기차처럼 움직이네?”

“컨베이어 벨트 밑에 바퀴가 달려 있지? 이걸 타고 온 제품을 직원들이 차레대로



꺼내서 하나씩 연결해야 돼. 연결된 전선과 제품은 전기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야.”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이라도 놓칠까봐 아이들의 눈과 입은 바쁘게 움직인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질문에 김영민 사우는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 주기 위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세상을 움직이는 전기, 전기와 함께하는 사람

공장 한편에 부품별로 차곡차곡 정리돼 있는 상자를 보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손을 뻗었다. 상자 안에 있는 스위치 제품을 만져도 된다는 아빠의 허락이 떨어지고 나서야 아이들이 조물조물 만져본다.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적용된 천안 공장은 창고나 서랍식 정리장들을 한 데 모아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설치했다. 이는 작업자들의 동선을 짧게 해 작업 효율을 높이고, 자연적으로 사고 확률을 대폭 낮추는 목적이 있다. 아빠의 일터 중 마지막 코스로 도착한 곳은 생산되는 다양한 배전반 중 수많은 과정과 손을 거쳐 완성된 스마트 배전반인 ‘유니기어 디지털(UniGear Digital)’ 앞. 이 제품은 전류 전압 센서를 고압 배전반에 최적화하여 통합하고, 여기에 디지털 계전기 및 IEC61850 개방형 통신기능을 결합한 것이다. 프로젝트 작업 변경에 따라 별도로 고압 부품을 교체할 필요가 없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준다. 슬림화된 설계로 변전소 내 공간을 적게 차지할 뿐만 아니라 부품이 적어 고장 발생을 크게 줄여주는 장점도 있다. 아이들과 아내는 지나오면서 봤던 여러 색깔의 전선과 자그마한 부품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에 한 번, 한데 어우러져 완성된 견고한 모습에 두 번 놀란다. 둘째 예서는 처음에 철판 하나로 시작됐던 게 어떻게 이런 멋진 모습으로 탄생되었냐며 몇 번이고 되묻는다.

“아빠가 지금까지 회사에서 퇴근하고 평일에 놀 시간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 너무 신기하고 지금처럼 계속 멋진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많은 사람들이 나눠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예준이와 예서가 아빠에게 든든한 응원을 보낸다. 이에 김영민 대리도 남다른 소감을 전했다.

“2000년에 ABB 코리아에 입사해 약 15년 정도 근무하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하는 일을 제대로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어요. 오늘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좋았고 우리 가족에게도 오래 기억이 남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빠의 일터를 직접 눈으로 본 날, 아이들의 마음은 한 뼘씩 자라나지 않았을까?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이 가득한 시간이었으리라. ABB 코리아는 앞으로 <InfoLink> 지면을 통해 사우들에게는 활력소를, 가족들에게는 즐거운 추억을 선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민 대리가 가족에게도 오늘이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Legislation’과 ‘Integrity’

글 법무 및 기업윤리 신수정 이사

부정부패방지법 제정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발의를 제안한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및 그 배우자 등에게도 해당되므로 법의 적용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몇십 년동안 각종 공무원 비리 사건을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제 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5년 부패인식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37위를 기록하였고, OECD 가입 34개 국가 중에서는 27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이지만, 국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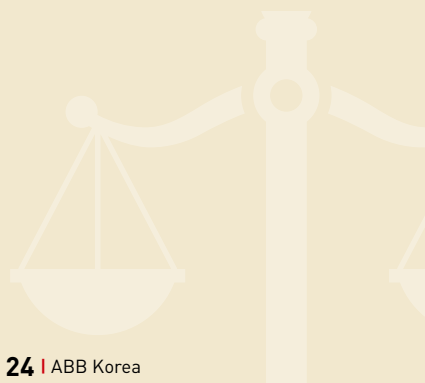
청렴도는 경제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에 발생한 ‘스폰서 검사’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부정청탁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한동안 큰 진전 없이 추진되지 않다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를 없애고자 201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예고된 시행령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

론인 등은 3만원이 초과하는 음식 대접 및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거나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인부터 시작하는 Integrity

언론을 통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를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법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비리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투명하지 않다면 윤리적이지 않은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Integrity란 법 준수(Compliance)를 뛰어넘어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명한 사회를 원한다면, 나부터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 친구, 회사부터 투명해져야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란 없습니다. 주위에서 내가 하는 행동을 누군가는 보고 있고, 사회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더 이상 모른 척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한 일을 가족이나 그 누구에게라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면 이 사회는 비리나 부정부패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Don't Look the Other Way!

**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비리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투명하지
않다면 윤리적이지 않은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별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시대적 배경
4.19 이후	- 민주당 '공무원 재산 등록 법안' 국회 제출 - 공무원 제회 재산 신고		
전두환 정부	- 공무원 윤리헌장 제정과 선포(1980) - 공직자윤리법 제정(1981)		- 사회정화운동(1981)
노태우 정부	- 공직 윤리 제도의 운영 강화		
김영삼 정부	-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1993) - 금융실명제 채택(1993) - 부동산실명제 실시(1995)	- 시민단체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1995)	- 공직자 재산 공개 파동(1993) - 금융실명제(1993) - 성수대교 붕괴 사건(1994) -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1995)
김대중 정부	-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발표(1999) - 공직자윤리법 개정(2001)	- 부패방지법 제정(2001) - 부패방지위원회 출범(2002)	- 옷로비 사건(1999) - 이용호 게이트(2001)
노무현 정부	- 공직자윤리법 개정(2005) - 주식 백지신탁제도 도입	- 부패방지법 개정,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2005)	
이명박 정부	- 재산 등록 친족 범위 합리적 조정 - 퇴직 후 취업 제한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로 출범(2008) -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 보고로 입법 필요성 제기(2011) -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입법 예고(2012)	- 박연차 게이트(2008) - 스폰서 검사 사건(2010)
박근혜 정부	- 공직자윤리법 개정(2014)	-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 제출(2013)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5)	- 원전 비리 사건(2013) - 세월호 사건(201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위클리 공감 2015.03.16



ABB인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Q&A

Q. 업체에서 와인 한 병을 받았는데 진짜 받아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우선 당신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에서 제공되는 선물, 접대의 경우 거절하거나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상황이란 특히 업체 선정 직전, 특정 업체와 계약 직후 등입니다.

선물이 친목/환대의 의미이고, 아울러 선물이 ABB 사규 GD/LI-45 및 현지 정책을 준수한다면 추가적으로 다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선물이 현지 관습 및 윤리적 관점에서 적당하고 타당한가. 둘째, 빈도가 매우 드물고, 공개적이며, 대가와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선물인가.

문의한 와인 품목의 경우 통상범위의 선물이며 명절에는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와인별로 금액이 천차만별이므로 가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선물 가치가 ABB규정 및 해당 국가의 선물 한도금액 초과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모든 사항 - 선물 · 접대 · 경비(Gifts, Entertainment, and Expenses)에 대해 상사와 Country Integrity Officer의 사전 승인을 GEE사이트(<https://abb.compliancedesktop.com>)에서 받습니다. 선물 제공 후 추가적으로 선물 · 접대 · 경비(Gifts, Entertainment, and Expenses)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야 합니다. 참고로 ABB 코리아에서는 수준높은 Integrity를 실현하고자 명절에 협력업체 및 이해 관계자들과 '선물 안주고 안받기'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안전 ABB 만들기

글 InfoLink team 이예립 사원



안녕하세요.
ABB 코리아 변압기 사업부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봉효석 차장입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우렁찬 구호 소리는
바로 변압기 공장에서 실시하는
안전체조 소리입니다.



봉효석 차장



오늘도 화이팅!



ABB 천안 변압기 공장에서는 원자재의 수급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변압기의 모든 제조생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천안공장 안전체조

ABB 코리아는 안전 체조를 비롯해 모든 업무 속에서 직원들의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고 경영자부터 직원들까지 사업장 내 위험 요소의 점검·관리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있는 ABB 코리아 안전 관리 현장 속으로 들어 가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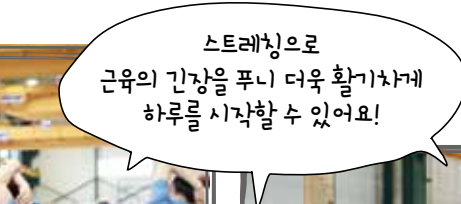
🕒 AM 08:20



변압기 사업부에서는 매일 아침 모든 팀원들이 모여 안전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체조를 실시하면서 체력을 키울 수 있을뿐 아니라 작업 능률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ABB 천안공장은 2016년 5월 5일 '무재해, 무사고 6,000일' 기록을 돌파했습니다.





글 양가희 사진 이맹호

고객 맞춤형 교육으로 현업 종사자들의 교육거점이 되다

그리드 자동화 교육현장



다양한 ABB 제품이 제조 생산되는 ABB 코리아 천안공장. 이곳에서는 배전반, 변압기, 인버터 등이 생산되고 제어시스템, 산업용 로봇 등 수많은 제품이 엔지니어링된다.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고객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ABB에서는 '고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수년째 진행 중이다. 꾸준히 고객의 발걸음이 증가하고 있는 천안공장 교육센터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보았다.



ECMS 기술 및 교육 선도

ABB 코리아 천안공장에 위치한 교육센터에서는 제어시스템, 변전소 자동화, 드라이브(인버터), 산업용 로봇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체 교육실에서 사업부 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교육생을 위한 데모 제품으로 직접적인 실습이 가능하다.

변전소 자동화 교육은 크게 시스템과 제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가장 상위 교육과정은 그리드 자동화 사업부의 대표 솔루션인 ECMS(Electrical Equipment Control & Monitoring System, 전력설비감시제어시스템)다. ECMS란 디지털 보호계전기를 중앙제어실에서 내부 통신망으로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고 분석이 가능하고, 설비 고장 시 복구시간이 단축된다는 이점도 갖고있다. 그리드 자동화 사업부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보호계전기부터 전력감시시스템(SCADA), ECMS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지난 5월 <InfoLink>팀이 취재한 그리드 자동화 관련 교육현장은 5일동안 진행되는 변전소 자동화 시스템의 핵심교육과정인 'ECMS(Electrical Equipment Control & Monitoring System, 전력설비감시제어시스템) 교육'이었다. ABB 코리아는 2007년 국내 최초로 국제표준 IEC61850에 기반한 ECMS를 고객사의 발전소에 공급하며 역량을 과시했다. 그리드 자동화 사업부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ABB 코리아의 최우선 가치를 엿볼 수 있다. ECMS는 발전소 및 변전소의 전력설비를 보호, 감시 및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국내에서는 1998년 북제주화력발전소(현 제주화력발전소)에 ECMS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신설 또는 수명 연장하는 발전소에 ECMS를 적용하고 있으며, 플랜트의 변전소에도 적용되고 있다. 각 가정마다 전기 차단을 위해 두꺼비집이 설치되어 있듯이, 고가의 산업설비가 손상되거나 폭발하는 것을 예방해주는 안전장치라고 하겠다. 이처럼 ABB는 ECMS 기술 분야의 선도 기업답게 교육 분야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다. 업계의 의견에 따르면 ECMS는 워낙 하이테크닉에 속한 기술이라 현업 종사자들도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ABB 코리아는 체계화된 교육을 위해 전문 엔지니어를 강사로 섭외하고 하드웨어(IED: Intelligent Electronic Device, 지능형 전자디바이스) 교육과 소프트웨어(MicroSCADA: Micro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원방감시제어시스템) 교육으로 과정을 나누어 진행 중이다.

제품 실습이 수반된 실무 교육

ABB 코리아에서는 6개의 교육장에서 연간 총 100여 가지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ECMS 교육이 진행된 곳은 변전소 자동화 교육실이다. 교육실에 들어서자 눈에 띈 것은 교육생 앞에 놓여있는 발전소용 보호계전기와 노트북이었다. ABB 코리아는 교육생들이 스크린 화면을 보면서 직접 계전기 세팅, 프로그램 계산, 메뉴 및 IP 찾기 등을 실습할 수 있도록 데모셋(DEMO SET)을 비치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서 ARC 동작이 일어났네요.” 편집팀이 촬영을 위해 플래시를 터트리자 일부 계전기 모델에서 ARC 동작(ARC Protection)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ARC 동작은 배전반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스파크를 감지해 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가리키는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기능이다. 보호계전기 모델 시리즈가 최신일수록 ARC 동작 기능이 잘 구현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육생들 앞에 놓인 계전기는 어떤 모델일까? ABB 코리아 천안공장 교육센터에서는 작업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모델이나 변전소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최적화된 Relion 600 시리즈 모델로 교육하고 있다. 교육생이 종사하는 파트에 따라 각각 다른 모델로 준비해 이날 배운 내용을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 맞춤형 교육과정

지난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교육과정에는 주로 유지보수와 시운전을 담당하는 현업 종사자들이 참여했는데, 교육생의 담당 부서에 따라 유지보수, 시운전, 설계 등 교육 내용의 방향과 비중을 달리한다고 한다. 교육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 특히 이번 교육에 참가한 현업 종사자들은 ECMS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각자가 사용하는 설비를 좀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니즈가 컸다. 그래서 고객사에서는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비 기준으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경우 추가 시간을 할애하거나 교육구성 조절 후 심화 내용을 다루기도 한다. 그리드 자동화 사업부 고정욱 부장은 “현재는 교육생들의 담당 부서에 따라 교육 내용이나 비중을 달리하고 있다. 앞으로 세분화되고 심층적인 교육을 위해 유지보수와 시운전, 설계에 대한 교육을 따로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전문 엔지니어 강사풀을 구축하고, 현업 종사자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ABB 코리아 그리드 자동화 사업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개편과 발전을 해나갈 계획이다. ABB 코리아의 천안공장 교육센터가 현업 종사자들의 교육거점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



Q. ABB 코리아 천안공장 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접하게 되었나요?

A. **우현영 대리** : ABB 코리아와 교류를 하다가 교육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 다른 곳에서 간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곳과 달리 엔지니어가 직접 강사로 나서고, 시뮬레이션 툴이 잘 구비되어 있어서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A. **엄일용 대리** : 평소 ECMS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ABB 코리아 담당자님과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이메일로 교육에 관한 안내문을 받아봤습니다. ECMS에 대한 정식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이번 교육을 통해 얻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엄일용 대리** : 평소에 발전기가 운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블랙아웃 등의 우려로 장비를 직접 만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기초적인 부분부터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부분까지 직접 장비를 만져볼 수 있어서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A. **우현영 대리** : 시스템이나 장비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진행된 교육은 내용이 너무 방대해 감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데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설비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접근해 쉽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Q. 장기간 진행되는 교육이라 체력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부담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소감에 대해 한 말씀해주세요.

A. **우현영 대리** : 투자 대비 가치가 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에게 직접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건 ABB 코리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력해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도 꼭 교육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A. **엄일용 대리** :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익히 알고 있지만, 일주일이라는 시간동안 발생하는 업무 공백은 사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교육 받은 내용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게 매우 유용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 ABB 코리아 2016년 하반기 제품 교육 일정

사업부	일정	교육 내용
드라이브 및 제어 사업부	7/13	AC Drive Basic
	7/20~21	ACS800 Multi Drive
	7/21~22	ACS800 Crane Drive
	8/24~25	ACS850 Single Drive
	9/28~29	ACS800 Multi Drive
	9/29~30	ACS800 Crane Drive
	10/11~12	DCS800 Industrial DC Drive
	10/19~20	Channel Partner Training
	11/2~3	ABB Standard Drive(ACS5X0/3X0/150/55)
	11/16~17	ACS850 Single Drive
	11/23~24	ACS M1 Motion Control Drive
	12/7~8	ACS800 Single Drive
	요청 시	ABB MV Drive
	요청 시	ACS800 Wind Turbine Drive
	요청 시	ACS880 Industrial Drives
	요청 시	ACS580 General Purpose Drives
	요청 시	System Integrator & Panel Builder Training

문의: 최혜린(hye-ryn.choi@kr.abb.com)

사업부	일정	교육 내용
로봇 사업부	7/6~8	기본 조작 (Basic Operation)
	7/11~15	프로그래밍 (RAPID Programming)
	7/18~22	전기 정비 (Electrical Maintenance)
	7/25~27	기본 조작 (Basic Operation)
	8/8~10	기본 조작 (Basic Operation)
	8/17~19	기본 조작 (Basic Operation)
	8/22~26	프로그래밍 (RAPID Programming)
	8/29~9/2	전기 정비 (Electrical Maintenance)
	9/7~9	기본 조작 (Basic Operation)
	9/19~21	기본 조작 (Basic Operation)
	9/28~30	기본 조작 (Basic Operation)
	10/10~14	로봇스튜디오 (RoboStudio Basics)
	10/17~21	프로그래밍 (RAPID Programming)
	10/26~28	기본 조작 (Basic Operation)
	11/7~11	전기 정비 (Electrical Maintenance)
	11/16~18	기본 조작 (Basic Operation)
	11/21~25	프로그래밍 (RAPID Programming)
	11/28~30	기본 조작 (Basic Operation)
	12/5~7	기본 조작 (Basic Operation)
	12/12~16	전기 정비 (Electrical Maintenance)
	12/21~23	기본 조작 (Basic Operation)

문의: 박세영 차장(se-young.park@kr.abb.com)

사업부	일정	교육 내용
그리드 자동화 사업부	9/8~9	Relion 615 series - Operation & Engineering
	9/22~23	REx54x series - Operation & Engineering
	9/26~28	SYS 600 MicroSCADA Pro 9.4 - Operation & Engineering
	10/11~12	Relion 630 series - Operation & Engineering
	10/18~19	Relion 670 series - Operation & Engineering
	10/24~28	Electrical Equipment Control & Monitoring System - Operation & Engineering
	11/8~11	Protection Relay Principle

문의: 고정욱 부장(jung-wook.koh@kr.abb.com)

ABB인의 특별한 기록

글 Infolink team 장셋별 대리



사랑 가득한 결혼 생활을

① 계측 및 분석기 사업부 김동휘 대리

2015년 11월 22일 | 신랑: 김동휘, 신부: 이은원
범사에 감사하고, 일상에 소중함을 느끼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 하겠습니다. 축하해주신 ABB 동료분들 감사드립니다.



② 그리드 자동화 사업부 이동현 대리, 변압기 사업부 김미순 대리

2015년 11월 28일 | 신랑: 이동현, 신부: 김미순
축하해주신 모든 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서로 이해하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③ 저압 배전반 사업부 김성훈 사우

2015년 12월 12일 | 신랑: 김성훈, 신부: 정은지
축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④ 저압제품 사업부 구준모 대리

2015년 12월 19일 | 신랑: 구준모, 신부: 어진명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⑤ 마린 및 항만 사업부 김영균 대리

2016년 1월 23일 신랑: 김영균, 신부: 지혜영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⑥ 고압 배전반 사업부 곽세찬 사우

2016년 3월 12일 | 신랑: 곽세찬, 신부: 신혜연
천생연분은 저희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지금처럼 서로를 위하여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2016년도 절반이 흘러갔다. 정신없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특별한 하루가 찾아왔을지도 모른다.
ABB인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될, 짧은 순간들을 사진으로 살펴본다.



⑦ 마린 및 향만 사업부 문성희 과장

2016년 4월 2일 | 신랑: 김도형, 신부: 문성희
축복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⑧ 마린 및 향만 사업부 김동섭 사우

2016년 4월 3일 | 신랑: 김동섭, 신부: 강민경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⑨ 발전 사업부 김기석 대리

2016년 4월 16일 | 신랑: 김기석, 신부: 이유나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⑩ 재경부 장샛별 대리

2016년 5월 14일 | 신랑: 송치호, 신부: 장샛별
많은 분들의 축하와 당부를 기억하여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천사와
제2의 인생을**



⑪ 터보차저 사업부 라근기 대리 특남

2015년 7월 14일 | 이름: 라하늘
공부는 못해도 된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런데 잘하면 더 좋겠지? ^^

⑫ 저압제품 사업부 정상진 대리 특남

2015년 9월 4일 | 이름: 정우빈
아프지 않고 잘 자라줘서 고마워,
우리 아들~

13 고압 배전반 사업부 문석영 대리 득남

2015년 10월 20일 | 이름: 문준우

준우야 언제나 웃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14 전력제품 영업부 유용주 대리 득남

2015년 11월 19일 | 이름: 유현균

귀염둥이 우리 현균이! 건강하게 잘 태어나줘서 고맙고 앞으로 엄마, 아빠와 좋은 추억 만들면서 행복하게 살자~



15 변압기 사업부 이재승 사우 득남

2015년 12월 8일 | 이름: 이근율

축복처럼 찾아온 근율이! 항상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엄마, 아빠, 누나가 많이 사랑해줄게. 사랑한다, 아들이!



16 드라이브 및 제어 사업부 김기영 대리 득남

2016년 1월 16일 | 이름: 김주현

건강하게 태어나서 고마워! 아빠 엄마와 함께 행복한 가족이 되자!



17 전력제품 영업부 송충용 차장 득남

2016년 1월 26일 | 이름: 송재민

하늘이 저에게 준 선물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 고압 배전반 사업부 손혁준 대리 득녀

2016년 1월 26일 | 이름: 손하린

아빠 엄마를 꼭 닮은 우리 예쁜 딸~♡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19 저압 배전반 사업부 신인식 사우 득남

2016년 2월 1일 | 이름: 신지후

다른 건 필요 없다. 건강하고 밝게만 자라다오.

20 고압 배전반 사업부 신기철 과장 득남

2016년 2월 21일 | 이름: 신동희

잘생긴 외모 아깝지 않게 아이돌로 잘 키우겠습니다.



**㉑ 마린 및 향만 사업부 주우진 과장
득남득녀(쌍둥이)**

2016년 2월 27일 | 이름: 주지성, 주지아
예정일보다 한 달 빨랐지만 건강하게 태어나서
너무 고맙다. 둘이라 엄마 아빠가 두 배로 힘들
지만, 기쁨도 두 배란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㉒ 마린 및 향만 사업부 강해용 대리 득남

2016년 2월 28일 | 이름: 강선우
엄마 아빠가 되어서 행복하구나. 고맙다!



㉓ 전력제품 영업부 신효선 사우 득녀

2016년 3월 16일 | 이름: 이여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도해주세요 ^^

㉔ 고압 배전반 사업부 황현주 대리 득녀

2016년 3월 21일 | 이름: 황선민
사랑스러운 우리 딸이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선민아! 우리에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아프지 말고 건강하자~ 사랑해~



㉕ 저압 배전반 사업부 박정의 사우 득남

2016년 3월 23일 | 이름: 박주찬
아들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엄마랑
아빠가 많이 많이 사랑해줄게~ 축복한다, 아들!

**㉖ 고압 배전반 사업부 류민호 대리
득녀(쌍둥이)**

2016년 3월 31일 | 이름: 류지인, 류지민
사랑하는 우리 쌍둥이들,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너무나 고맙고, 한꺼번에 둘씩이나 낳는다고 고
생한 와이프~ 너무나 고생했고 사랑합니다.



㉗ 변압기 사업부 윤만복 대리 득녀

2016년 4월 11일 | 이름: 윤서인
건강하게 태어나 준 서인아와 무사히 출산해 준
와이프에게 감사하고, 축하해주신 모든 분께 감
사드립니다. 우리 아기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㉘ 발전 사업부 서은구 차장 득녀

2016년 4월 28일 | 이름: 서유진
오빠랑 행복하게 지내길 소원해요.

The future of ABB begins with you

글 InfoLink team 이현희 과장

ABB Group은 2014년 10월 Next Level 전략을 발표하여 2020년의 도약을 위한 포석을 마련한 이래, 2015년 10월에는 보다 구체화된 Next Level 전략 2단계를 소개했다. 추가적으로 2016년 2월 ABB 직원의 행동가치인 'Values in Action'을 발표하였다.

Values in Action에 제시된 5가지 Value Pairs는 Next Level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ABB 구성원들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다. 이러한 핵심가치가 실제 일상 업무에서 실천 및 실행되도록 구체적인 행동으로 접목되었고, 나아가 이 행동가치를 직원들의 역량모델까지 확대해 직원평가와 연결시키는 전사적인 필수 덕목으로 강화하였다. 즉, '핵심가치(Value Pairs) → 행동가치(Values in Action) → 역량모델(Competency Model)'로 점차 확대된 것이다. 역량모델로 확대된 5가지의 행동가치인 1. 안전과 기업윤리(Safety & Integrity), 2. 고객중심 및 품질(Customer Focus & Quality), 3. 혁신 및 스피드(Innovation & Speed), 4. 주인의식과 성과지향(Ownership & Performance), 5. 협력 및 신뢰(Collaboration & Trust) 5쌍은 ABB에서 꾸준히 강조되어 온 Value Pairs이다. 5가지 행동가치는 모든 업무에 있어 기본이



되도록 전 직원 성과시스템의 Behavior target으로 설정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지난 5월 전 직원에게 배포된 행동가치(Values in Action) 지침서에는 경력 레벨에 따라 4단계(Leadership/Experts, Management/Senior Specialists, Team Leaders/Specialists, Individual Contributors)로 나누어 ABB 직원이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상세히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직원들은 본인의 직급에 맞는 단계를 확인하고 각 행동가치의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개인 목표를 설정하면 된다.

Values in Action은 회사에는 직원 채용부터 성과 평가까지, 직원에게는 교육부터 자기개발 방식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적용된다. 이러한 역량평가 방식은 ABB의 인적자원개발 및 평가의 중심개념으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아울러 역량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행동가치의 탐구는 성과중심 문화를 발전시키고 회사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B 행동가치를 업무에 적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ABB 그룹에서는 핵심가치를 실천 중인 23명의 직원을 취재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Inside ABB, ABB 웹사이트, 동영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되었으며, ABB 코리아 모든 사무실에도 행동가치 문구와 함께 포스터가 게시되었다. 그 중 한가지를 소개하니 그들의 행동가치를 우리도 실천해보자.





ABB 코리아 전 사무실에는 Values in Action 포스터가 게시되어 있다.

Interview



Claes Westerlind
클래스 웨스터린드, 스웨덴

“
모든 팀원 한명 한명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

모두가 동일한 책임감 공유

2014년부터 고압전력 케이블 시스템(High Voltage Cable System)의 글로벌 세일즈 및 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근무 중인 부서는 대륙간, 국가간을 연결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전력망으로 보내는 거대한 상호연계 고압케이블 시스템의 설계, 생산, 배송 및 설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합니다. 현대사회가 직면한 에너지 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건 크나큰 행운입니다.

엔지니어로서 ABB가 시장 선도기업이자 세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현재 초고압 분야에서 구현 가능한 최고의 기술을 갖춘 선두업체이며, 이런 기술 리더십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 및 또다른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몹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덴마크 연안 해상 풍력 케이블이나 노르웨이의 수력발전시스템이 유럽 대륙에서 화력발전소의 열효율 향상을 위해 적용 중이듯이 이러한 프로젝트는 범국가적으로 진행되고 효과도 높습니다.

Claes Westerlind(클래스 웨스터린드, 스웨덴)

Claes는 2006년 프로젝트 엔지니어로 ABB에 합류하여 중국 충칭에서 첫 번째 업무를 시작했다. 현재 그는 30명으로 구성된 글로벌 팀의 리더이다. Claes는 참여했던 스코틀랜드의 Caithness-Moray Subsea power link와 노르웨이-독일을 연결하는 Nordlink 프로젝트에 대해 큰 자부심은 물론, 그의 기대치를 탁월하게 뛰어넘는 팀원들에 대해서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NEWS

번역 및 편집 InfoLink team 임현지 과장

January

1

ABB 탄생 125주년 기념 알레그라 기차 운행



ABB는 스위스 탄생 125주년을 기념하며, 라에티아 철도의 알레그라 기차를 ABB 기념 브랜딩에 맞춰 디자인하였다. 기차의 외관 디자인은 ABB의 주요 기술개발과 역사적 사건을 연대별 그래픽으로 제작되었다.

지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기간에는 ABB 디자인이 적용된 알레그라 기차가 란드쿠아르트(Landquart)와 다보스(Davos) 구간을 오갔으며, 이후에는 라에티안 철도 구간을 운행 중이다.

100여 년 전부터 스위스 철도 산업에 참여해 온 ABB는 1913년 ABB 전신인 BBC사에서 현재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알불라(Albula) 노선에 최초로 기관차를 공급했으며, 1921년부터 924년까지 고트하르트 라인의 전기화 작업에도 동참했다.

한편, 알레그라 기차를 제작한 스타들러 철도(Stadler Rail)는 2002년에 1,500량의 지역 기차와 300량의 경전철에 적용하고자 ABB 설비를 대량 주문하였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사이트 제공

ABB는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46회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사물, 서비스 그리고 사람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기술(Internet of Things, Services and People, IoTSP)을 통해 산업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생산성 증대를 위해 기계와 인간의 공동작업 및 협업이 어떻게 증가되는지에 대해 통찰해 보는 시간이었다.

ABB의 혁신적 기술개발의 산물인 YuMi는 학습하는 로봇이, 산업계에서 미래 인간과 로봇의 공동 작업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EMICON KOREA 2016에서

협업용 양팔로봇 론칭



서울 코엑스에서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반도체 전시회 SEMICON KOREA 2016에서 ABB는 계측 및 분석기, 순간전원보상설비, 산업용 로봇, 저압제품을 전시하였다.

'미래, 시장, 기술, 그리고 사람과의 연결'을 주제로 한 전시회에서 ABB는 세계 최초의 협업용 양팔 로봇 YuMi를 국내 최초로 공개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 적용되어 공정수율을 높여주는 LGR 가스분석기를 소개했다.

이외에도 HCl나 HF를 분석하는 제품과 CH₄, CO₂와 H₂O를 분석하는 Ultraportable 가스 분석기 제품이 전시되었다. 또한 유럽의 IEC 인증은 물론, 미국으로 수출되는 장비를 위한 UL 인증과 중국의 CCC 및 한국 KC 전기안전 인증 등 다양한 인증을 확보하고 있는 ABB 차단기 및 컨트롤 제품들을 선보였다.

계측 및 분석기 관련

Channel Partner's Day 개최



계측 및 분석기 사업부는 1월 16일, 대리점을 대상으로 계측 및 분석기 사업부 'Channel Partner's Day'를 개최하였다.

ABB 코리아 관계자와 대리점 사장단 50여 명이 참가한 이 행사는 ABB 천안공장에서 진행되었다. ABB 및 사업 소개, ABB Next Level 전략, 기업윤리 교육 및 2016년 사업 방향을 제시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5년 기준으로 우수 대리점을 선정하여 협력과 노고에 감사하고, 대리점 성공 스토리를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February

2

ABB그룹 2015년 Annual Report 발행



2015년 ABB 연간보고서가 온라인 및 인쇄본으로 발행되었다. 연간보고서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기준에 맞춰 제작되었으며, 온라인 버전은 www.abb.com/groupreports에

서 확인 가능하다. 해당 주소에서 요청 시, 인쇄 발행 버전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연간보고서에는 ABB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비즈니스, 거버넌스 및 재무성과가 수록되어있다.

ABB Life 교육 실시

2월 22일부터 5일간 신입직원 39명을 대상으로 천안공장 교육장에서 '2015 ABB Life 교육'이 실시되었다. ABB Life는 전 세계 모든 ABB에서 적용 중인 신입사원 교육과정이다.

ABB의 비전, 미션, 가치 및 역량 등에 대해 공유하고, 경력개발에 대한 정보와 Next Level 전략



달성을 위한 직원의 기여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최만규 대표는 2020 전략 및 시니어 리더 참여(Senior leader engagement) 과정에 직접 참석하여 미래 ABB를 이끌고 갈 인재들과 비전을 공유하였다. ABB Life 프로그램은 추가적으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다.

March

3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에 4년 연속 선정



ABB는 세계적인 기업윤리연구소 에티스피어 인스티튜트가 주관하는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명단에 4년 연속 선정되었다. ABB CEO는 "기업윤리는 ABB 핵심가치 중 하나이다.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기업윤리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매년 노력하고 있다. 수준 높은 기업윤리를 달성하기 위한 직원들의 헌신과 실천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평가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된 에티스피어 인스티튜트의 EQ 윤리지수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평가

된다. 윤리와 규제 준수 프로그램(35%), 기업 시민의식 및 책임(20%), 윤리문화(20%), 경영구조(15%), 리더십, 혁신 및 평판(10%)의 5개 주요 항목별로 채점되며, 평가 과정에 참여한 모든 기업들에게 점수를 공개하고 있다.

유럽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한 1억 4천만불 HVDC 프로젝트 수주



ABB는 덴마크 송전 시스템 운영사인 Energinet.dk와 독일의 50Hertz Transmission 전력 회사로부터 독일 북부 벤트위쉬(Bentwisch)에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소를 설계, 공급 및 설치하기 위한 1억 4천만불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 해상 프로젝트는 유럽 내 최초의 HVDC Light 변환소로 덴마크 동부와 독일의 전력망을 연결하게 된다. HVDC 상호연결장치는 400MV용량으로 40만 가구의 전기소비와 맞먹는다.

이 사회기반시설 개발은 유럽 연합으로부터 공동 투자되었으며, 유럽 신재생에너지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간 의미 있는 작업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통합하면서 향상된 전원 보안과 에너지 교류에 부가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BB는 변전기, 컨버터 밸

브, 냉각 시스템 및 제어, 보호 등 HVDC 변전소 내 완전한 구성요소를 공급한다.
HVDC Light는 정전 시 전원 복구력이 뛰어나고 풍속 변화에 따른 시스템 제어가 뛰어난 전력제어 기술로 보다 정교한 특징이 있다.

ABB, 지구촌 전등 끄기

Earth Hour 캠페인 참여

ABB 코리아는 3월 19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한 시간 동안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 'Earth Hour'에 참여하였다.
세계자연기금(WWF)이 주관하는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 '어스 아워'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지구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시작된 글로벌 환경운동 캠페인이다.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되어 1시간 동안 모든 전등을 소등하며 매년 전 세계 개인, 기업,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구촌 행사로 확대되었다. ABB는 'Power and productivity for a better world(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전력 및 생산성 향상)'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어스아워 캠페인에 각국별 다양한 형태로 매년 참여하고 있다.

April

4

버락 오바마 대통령 · 앙겔라 메르켈 총리, ABB의 획기적인 디지털 기술에 깊은 관심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

켈과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ABB 부스를 방문해 ABB의 획기적인 신규 스마트 센서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ABB는 어떻게 스마트 센서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연결되고, 수억 대 전기모터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어떻게 높아지는지 설명했다.

이 디지털 솔루션은 저압모터가 처음으로 사물인터넷 기술에 연계된 사례로 ABB는 사물, 사람,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기술(IoTSP : Internet of Things, Services and People)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ABB 양팔 로봇 YuMi가 스마트 센서를 저압모터에 장착하는 시연이 진행되어 얼마나 손쉽게 설치가 가능한가를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스마트 센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하여, 하노버 산업박람회를 찾은 많은 잠재 고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으며, 올해 말 경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대구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 참가

4월 6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International Green Energy Expo & Conference 2016)에 ABB 산업자동화 사업본부와 전력기기 사업본부가 동반 참가하였다.
이 엑스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로서 약 25,000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ABB는 새로 출시한 벽걸이형 인버터 TRIO50, PRO33, TRIO27.6을 비롯한 각종 태양광 인버터와 DC용 저압차단기, 저압제품을 전시하며 한층 강화된 포트폴리오를 선보였다.
세계 최초로 태양 에너지로만 전 세계 일주에 도



전 중인 솔라임펄스에 대해서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을 설치하여 참관객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솔라임펄스 조종을 시도할 수 있었다.

스트링 인버터 제품군 신규 론칭



ABB 코리아는 50kW 벽걸이형 무변압기 3상 인버터를 출시했다.

신규 론칭된 50kW 솔라 인버터는 대용량 발전소에 적용 가능한 모델이다.

ABB 코리아는 저압으로 연계 가능한 500kW 미만의 발전소에 대해 20kW, 27.6kW, 33kW 벽걸이형 인버터를 주력 제품으로 국내 시장에 공급 중이며, 금번 50kW 벽걸이형 인버터 출시를 통해 저압 드라이브 관련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50kW 벽걸이형 인버터는 높은 효율성 및 신뢰성을 갖고 있으며, 기후 변화가 많은 국내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뿐만 아니라 접속판과 쿨링팬을 손쉽게 분리할 수 있어 설치와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지붕 위나 지반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수직, 수평 설치가 가능하며, 방수 및 방진을 위한 인증을 받은 외함을 적용했다.

ABB CEO, 인도 총리와 만나 협력 방안 모색



ABB CEO 올리히 스피에스호퍼는 4월 5일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를 만나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 내 모든 가구에 100% 전력 보급, 제조업 확대, 사회기반시설 업그레이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인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계획안에 대한 지원과 신재생에너지의 촉진에 대해 ABB가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인도는 개발도상국과 비교하여 30% 이상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 ABB로서는 신재생 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기술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모터 및 드라이브 솔루션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자로 고려된다.

또한 모디 총리는 수백만 대의 오토릭사(인도의 대중 교통수단)가 전기로 구동되는 e-Mobility 신기술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며, ABB 역

시 전기 오토릭사의 충전 솔루션에 대해서 더욱 고민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ABB와 솔라임펄스, 청정에너지 미래의 실현 가능성 증명



2015년 7월, 배터리 손상으로 인해 잠정적으로 비행을 중단했던 솔라임펄스가 올해 4월 21일 하와이 이륙을 시작으로 비행을 재개하였다.

연료 없이 오직 태양에너지로만 비행하는 세계 일주 프로젝트를 통해 청정에너지의 실현 가능성을 다시 증명하게 된 것이다.

ABB와 솔라임펄스는 청정에너지를 통한 기술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다. ABB는 솔라임펄스가 경유하는 국가마다 전력 공급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솔라임펄스의 8번째 경유지인 하와이에서는 ABB가 마이크로그리드 솔루션을 통해 청정에너지 보급을 더욱 늘리고 있다.

하와이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착수함에 따라 에너지원을 석유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전체 에너지원의 100%를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ABB는 하와이 북부의 카우아이 섬에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통해 전력 공급 및 유사 시 예비 전

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May

5

로봇 머신 텐딩 포트폴리오 강화 위한 SVIA 자동화 솔루션 인수

ABB는 5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머신 텐딩(Machine Tending) 로봇셀 시장의 선두기업 SVIA사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있는 SVIA사는 로봇을 활용한 머신 텐딩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로봇 자동화 통합을 위한 800개 이상의 솔루션을 보유함으로써 생산성, 유연성 및 제조기술의 고급화에 기여 중이다.

금번 인수로 ABB는 자동화, 스마트폰 제조와 같은 플라스틱 공학 및 전자 공학을 포함하는 산업군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머신 텐딩 포트폴리오를 한층 강화하게 된다.

기계 제조 OEM, 고성능 CNC(공장기계 자동화) 사용자 및 ABB 글로벌 채널 파트너의 사업 강화가 기대된다.

천안공장 무재해 6,000일 돌파

5월 5일 ABB 천안공장이 무재해 6,000일을 기록했다. ABB 천안공장은 1999년 12월 1일 무재해 운동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무사고 기록을 이어오고 있다.

쾌적한 작업환경, 직원의 안전 및 건강, 사고 예방을 위해 ABB 전체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ABB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



속적으로 모른 척 하지 않기(Don't Look The Other Way) 캠페인을 실시하고, 매달 둘째 주 수요일에 전 직원 안전조끼 착용으로 안전의식을 고취한다. 또 위험한 업무 환경 사전 발굴 및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ABB그룹은 전사적으로 11월 14일부터 18일을 안전주간으로 선포하고, 안전에 대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권 대학 외국인투자기업 채용설명회 참가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5월 31일 개최된 외국인투자기업 설명회에 ABB 코리아가 참가하여 약 250명의 대학생과 교류하였다. ABB 코리아를 포함한 약 8개 기업이 각 회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후반부에는 개별 부스에서 채용 상담이 이루어졌다.

ABB 코리아의 비전과 인재상, 제품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부스를 방문하여 열린 Q&A session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ABB 코리아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국내 최대 철강기업 포스코에 열간 압연기용 모터 및 드라이브 업그레이드 계약 수주

ABB와 포스코는 포스코 포항공장 열간 압연기에 사용 중인 트윈 DC모터와 이와 연결된 드라이브를 신규 AC모터 및 새로운 드라이브 기술로 교체 적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CS 6000 고압 AC드라이브와 ABB 대형 동기 모터 AMZ를 적용함으로써 공정효율 향상과 더불어 정확성, 신뢰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업그레이드 이후 정확한 설비 제어로 포스코 공장 내 전기소비, 유지비 감소 효과는 물론 조압연 2 압연공정(Roughing Mill 2 rolling mill)에서 안전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모터와 드라이브 업그레이드를 통해 설비 가동 중지 시간은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력 신뢰성이 높아지게 된다.

June

6

ABB 기술 적용된 세계 최장 철도 터널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 개통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터널인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Gotthard Base Tunnel)이 6월 1일 스위



스 정부 주관으로 공식 개통되었다.

ABB는 'Gottardo 2016'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로서 세기에 기록될 세계 최장 터널 건설에 참여했다.

57km 길이로 현존하는 터널 중 가장 긴 철도 터널로 이름을 올리게 된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 개통식에는 다수의 주요 정재계 인사가 참여하였으며, ABB는 2개의 파빌리온에서 터널에 적용된 ABB기술을 소개하는 쇼케이스를 오픈하였다.

Formula-E 레이싱카 80대의 출력과 맞먹는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의 환기 시스템에는 ABB 전력공급장치 및 드라이브 시스템이 적용되었고 환기팬, 터널 센서, 화재 위치 감지 활성화 및 제어 설비로 구성된 전체 환기시스템 제어설비가 설치되었다.

이와 별도로 터널 내 각종 인프라 전력공급을 위해 ABB는 899대 고압기기, 500대 이상의 보호 제어설비, 300대 이상의 변압기를 공급하였다. ABB의 모든 설비는 고온, 습도, 시속 250km 철도 운행으로 인한 극심한 압력에도 견딜 수 있도록 우수한 내구성을 갖추고 있어 최소한의 유지보수로 운영이 가능하다.

〈ABB 코리아 인사 공지〉

ABB 코리아 CFO 신규 임명



6월 1일부로 프랑크 라쉬 (Frank Lasch)가 ABB 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 (CFO)로 부임하였다.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1989년 ABB에 입사한 이후, ABB Germany

공정자동화 사업본부 서비스 총괄 책임자이자 공정자동화 사업본부 및 중앙 유럽 지역 컨트롤러를 역임했다.

마린 및 항만 사업부 총괄 신규 임명



5월 1일부로 ABB 코리아의 마린 및 항만 사업부 총괄로 북달 김 (Bukdahl Kim) 상무가 임명되었다. 북달 김 상무는 2011년 ABB에 입사한 이후, ABB Norway 마린 서비

스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약했으며, 앞서 머스크 라인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한 바 있다.

모터 및 발전기 사업부 총괄 신규 임명



6월 15일부로 모터 및 발전기 사업부 총괄로 박병훈 상무가 영입되었다. 박병훈 상무는 최근까지 글로벌 냉동공조 부품 기업인 댄포스(Danfoss)에서 국내와 일본 HVAC(공

조시스템) 및 산업 자동화 제품 본부장을 역임했다.

QUIZ



2016 퀴즈퀴즈

1. 사물(Things), 서비스(Services), 사람(People)을 인터넷(Internet)으로 연결하는 기술을 뜻하는 ABB만의 사물 인터넷 용어는 무엇일까요?

2. 1996년부터 시작된 ABB 코리아 사보 <InfoLink>는 올해 00번째 발간을 맞았을까요?

(힌트: 사장님 메시지)

※ 퀴즈 응모처: infolink@kr.abb.com
당첨되신 분들께 선물로 블루투스 스피커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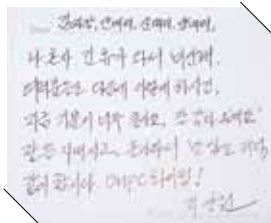
지난 호 정답 : 3명, YuMi

지난 호 퀴즈 당첨자 : 박정수, 김석태, 송유나, 진우종

ABB POST



ABB의 따뜻한 소식



우편타고 온 손편지

전력변환기기 사업부 지원원 차장

오늘도 회사에 남아 일을 처리하고 있는 수많은 '김과장, 안대리, 신대리, 양대리'에게 선배이자 상사인 차장님이 우편으로 보낸 손편지.

재경부에 온 선물

재경부 전지영 대리

ABB를 떠난 뒤에도 수년째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음료수를 보내주는 김유진씨 고마워요~





Measurement made easy Reliable performance, wherever you need it



폐수 처리 단계에서, 용존산소의 조절은 오수에 존재하는 박테리아나 다른 유기체를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로 전환시키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BB의 ADS430 용존산소 센서는 별도의 교정장치 없이 사용 가능하며, 센서 캡은 개별적으로 교정되며 재교정 할 필요없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됩니다. 또한 ABB의 광학 DO 센서 시스템은 뛰어난 정밀도와 정확성으로 용존산소 측정을 보여줍니다. 더 많은 제품을 ABB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www.abb.com/analytical